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명갑 선거구(광명동, 철산동) 국회의원 후보

책자형선거공보

사람에 투표하세요



광명 출생(49세),
광명고 광남중 광덕초 졸업

광명사람 광명일꾼

3

양순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명시갑 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3	민생당	양순필	남	1970.06.23. (49세)	작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전)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656,673	220,590	436,083	고지거부	없음	육군이병 (복무만료)	해당없음

3. 세금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 보 자 전 과 기 록
구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40,072	없음	없음	없음
후보자	25,388	없음	없음	
배우자	14,684	없음	없음	
직계존속	신고거부			
직계비속	없음	없음	없음	

4. 소명서

--

사람에 투표하세요



양순필 당선, 이것은 정치혁명입니다

이곳 광명갑 선거구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립니다. 과연 양순필 후보가 기득권 양당을 모두 꺾고 당당하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양순필 당선, 이것은 '정치혁명'입니다. 광명시민이 기득권 양당을 이기는 '시민승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기득권 양당의 광명갑 낙하산 공천은 오만과 뻔뻔함을 넘어 광명시민에 대한 정치적 테러입니다.

양순필은 기득권 양당에 맞선 당당한 제3후보로 이곳 광명갑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은 결코 광명시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에 광명갑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면 4년 후엔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국민과 '양순필들'이 기득권 양당에 맞서 이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혁명, 광명에서 시작됩니다.

“양순필 씨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순필을 읽는’ 양순필이 쓴 3권의 책

20대 시절 신문기자로 활동했던 양순필은 이후 한국정치와 우리 사회에 대한 대안과 통찰을 담은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시티즌 오블리주》, 《노무현, “한국정치 이의 있습니다”》, 《팜플렛, 정치맛집》 등은 출간 당시 유명서점에서 관련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양순필이 쓴 3권의 책을 통해 양순필의 정치철학과 사회의식을 만나는 ‘양순필을 읽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시티즌 오블리주》

양순필은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며, 이런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갈 생각을 나누기 위해 《시티즌 오블리주》라는 책을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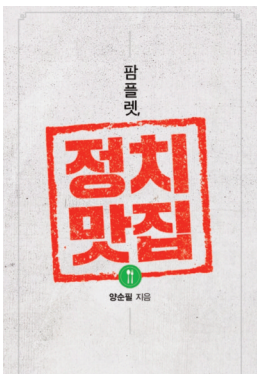
‘시티즌 오블리주’는 양순필이 이 책을 쓰며 만든 신조어입니다. 가진 게 많거나 신분이 높은 귀족에게 도덕적 책임을 요구할 때 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이 이웃을 돕고 함께 나누는 ‘시민의 사회적 책임’ 즉, 시티즌 오블리주를 실천할 때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한국정치 이의 있습니다”》

양순필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기획 행정관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재직 당시, 한국정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정리한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책을 대통령 비서실 동료들과 함께 썼습니다. 대통령님 서거 후 수정 보완해 《노무현, “한국정치 이의 있습니다”》를 다시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못 다 이룬 꿈’이 담겼고, 저자로 참여한 양순필은 그 꿈이 ‘자신에게 남겨진 몫’이라고 생각하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 정치맛집》

“큰 당에 들어가서 빨리 국회의원이 되라”는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양순필이 제대로 된 제3당을 만들기 위해 일관되게 도전하는 이유는 왜 일까요?

《팜플렛, 정치맛집》은 이런 질문에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깊이가 있게 답한 책입니다. 양순필은 정치 잘하는 좋은 정치인이 있는 곳을 <정치맛집>이라고 이름 짓고, 자신을 맛집 주방장이라고 부릅니다.

기득권 양당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비유하고, 정당과 정치사상 등 어려운 이야기도 <시식 코너>를 차려내듯 맛깔나게 소개합니다. <디저트>로 내놓은 ‘정당 대변인 아빠가 쓴 동화’는 양순필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명(名) 대변인에서 '광명 대변인'으로



대변인을 정당 당직자(黨職者)의 꽃이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양순필은 국민참여당과 국민의당에서, 또 안철수 대통령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양순필 대변인이 낸 논평을 하루에 수십 개 언론사가 동시에 보도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치 행태를 한 단어로 압축해 만든 '양순필표 신조어'가 방송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정치부 기자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名) 대변인'으로 불렸습니다.

명 대변인 양순필이 이제 국회에서 광명시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광명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양순필은 광명에서 태어나 광명고등학교 등 관내 초중고를 모두 졸업했습니다. 광명시가 변화해 온 과정을 몸으로 겪으며 이곳에서 성장해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수많은 주민들과 인연을 맺고 소통해 왔습니다.

광명지역 현안과 국가개혁 과제를 믿고 맡길 진정한 '광명 대변인', 바로 양순필입니다.

기득권 양당에 맞선 세 번째 도전

양순필은 이번이 세 번째 총선 도전입니다.

광명갑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한 것은 2012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고, 국민참여당 대변인을 거쳐 19대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현역인 백재현 국회의원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을 했고, 근소한 차이로 패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는 국민의당 광명갑 국회의원 후보로 두 번째 도전했습니다.

총선 결과 정당득표에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제치고 광명시 득표율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지만, 양순필은 21% 득표로 또 한 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낙선 후 광명갑 지역위원장과 중앙당 대변인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지난해 가을까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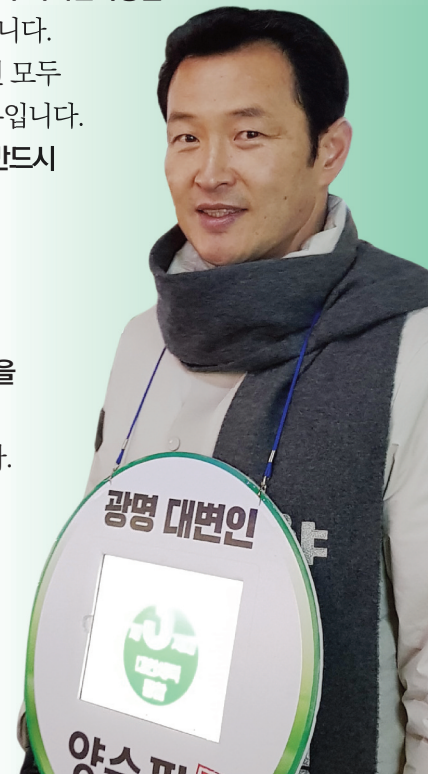
양순필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을 기득권 양당으로 규정합니다.

그가 지난 두 차례 총선 모두 제3후보로 도전한 이유입니다.

“4월 총선, 광명갑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기득권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제3지대 대안세력을 통합해 제대로 된 제3당을 만들 겁니다.”

양순필의 출사표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 광명의 내일

고르게 발전하는 광명동·철산동

- ✓ 뉴타운·재건축과 연계한 주거·교육·교통 환경 종합 개선 시책 추진
- ✓ 문화 시설, 체육 활동 공간 확충 / 목감천을 시민건강공원으로
- ✓ 구일역 이용 불편 해소 / 이동 약자 광명사거리역 이용 편리성 개선 추진

광명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스마트 안전 도시

- ✓ 방역, 미세먼지, 공사장 분진·소음 등 생활환경 종합대책 마련
- ✓ 여성과 노인, 어린이 보호 대책과 교통안전·치안 CCTV 설치 확대
- ✓ 안전관리 사각지대 집중 관리를 위한 안전제도 개선 및 시설·인력 확충

광명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 ✓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주민 교류 활성화 공간으로 적극 육성
- ✓ 마을 북카페와 동네 작은 도서관 설립·운영 지원
- ✓ 소통과 공감으로 시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갈등·대립 예방과 해결



광명발전
양순필의
정책



 양순필

국민과 함께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



• 국가개혁 의 '3+3' • 공약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나라

- ✓ 보육과 교육, 주거 격차 해소 추진
- ✓ 의료 공공성 강화와 건강 불평등 해소
- ✓ 장애인·여성·청년의 직업 기회 확대와 자립 생활 보장 강화

선진 민주주의로 가는 정치 개혁

- ✓ 오만한 국정 운영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
-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특권 폐지로 국회 개혁
- ✓ 국민 입법제도 도입, 정당 개혁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

기후위기와 4차혁명에 능동적 대응으로 행복한 미래

- ✓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환경 위기에 전 지구적 대응
- ✓ 4차산업혁명에 중소기업·중소영세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는 상생 경제
- ✓ 공정한 기회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개혁

광명의 내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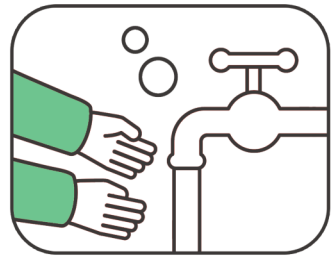
광명시민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시민, 경북도민을
응원합니다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기침할 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병원에 가지 마시고
먼저 1339 또는 광명시보건소 02-2680-2577에 전화하세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양순필이 광명시민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 마스크를 무슨 요일에 살 수 있나요?

출생년도 뒷자리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해당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1 6	2 7	3 8	4 9	5 10	미구매자

꼭 신분증을 갖고 약국에 가시면 됩니다.

오만한 여당 **뽀뽀한** 야당 투표로 **혼내주자**

1번 당이 미워서 어쩔 수 없이 2번 당 찍고,
2번 당이 싫어서 마지못해 1번 당을 찍는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선거 때면 '털 나쁜' 차악을 찾는 유권자는 불행합니다.

하지만 광명갑 국회의원 선거구는 다릅니다.

최고의 선택! 확실한 대안!

양순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낯고 무능한 정치를 끝낼 실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가,

광명시민과 함께 비를 맞고 눈물을 흘려온 따뜻한 사람,

한국정치를 바꿀 제3당을 만들어 낼 욕심 있는 정치인,

광명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지역을 지켜온 진짜 일꾼,

기득권 양당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과 지지 기반을 가진 강한 후보,

광명갑에는 양순필이 있습니다.

확실한 **대안** 최고의 **선택**



국회의원회관을 지은 건설노동자의 아들, 양순필 평범한 이웃들의 소박한 꿈을 이루는 참 좋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팜플렛

정치
맛집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짧은 털이 까끌까끌하게 난 연두색 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털 사이사이에 황토흙이 끼어 있었고, 만지면 마치 '스포츠편'로 깎고 뒷목을 쓸어 올릴 때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거나 비슷한 또래의 남자분들은 어떤 감촉인지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그때 테니스공이라는 것을 처음 봤고, 테니스공의 털은 원래 그렇게 짧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공으로 동네 아이들과 '짹짹 놀이'를 재밌게 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 '새 테니스공'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털이 길고 만지면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테니스공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께서 예전에 주신 테니스공이 오래 사용해 털이 달아서 짧아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의 국회의원회관이 건설될 때 그곳에서 일용직 노동자, 일명 '노가다'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테니스를 치다가 공이 울타리를 넘어오면 주워서 건네 드리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냥 가지셔도 된다"고 해서 주머니에 넣고 와 제게 주셨던 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국회의사당을 짓는 일을 하시는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곳을 짓고 계신데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국회의원이 돼 우리 아버지가 지은 의원회관에서 일할 거야."

그리고 20대 청년이 됐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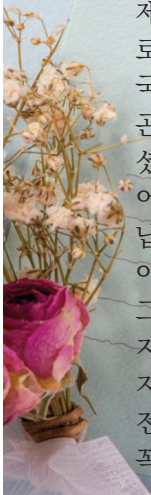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자신들의 방이 있는 의원회관을

지은 노동자의 자식이 있을까?

전 국회의원회관을 지은 건설노동자의 아들로서

꼭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광명 대변인
양순필



민주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광명발전, 민주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일하는 국회, 민주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경제살리기·국가개혁, 민주당으로는 안 됩니다

행복한 국민도 성공한 대통령도 민주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광명갑 지역은 지금 국회의원부터 광명시장, 경기도의원과 광명시의원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광명 발전, 민주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집권여당이 오만과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견인할 새로운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민주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미래도 통합도 없는 제1야당에게 의회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경제살리기, 정당개혁, 검찰개혁, 국민통합 민주당으로는 안 됩니다.

민주당보다 한발 앞서서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이끌겠습니다.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국민도 성공한 대통령도 민주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광명갑은 양순필입니다.

21대 국회, 양순필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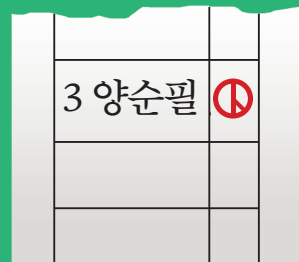


사람에 투표하세요

사전투표 안내

4월 10일(금)부터 4월 11일(토)까지
(오전 6시~오후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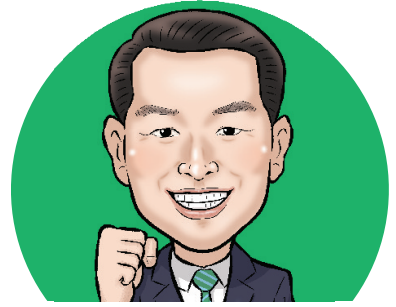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결코 광명시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양순필

광명이 키운 인물 광명을 키울 일꾼

광명 출생(49세)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전)
 네이버 뉴스 편집 자문위원 (전)
 국민의당 대변인 (전)
 국민참여당 대변인 (전)
 내일신문 기자, 제과제빵공 (전)
 경기도교육청 소통협력 팀장 (전)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도시주택분과 자문위원 (전)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자문위원 (전)
 어르신 자서전 써드리기 작가
 착한정치협동조합 운영위원장
 학력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저서 : 《팜플렛, 정치맛집》, 《시티즌 오블리주》
 《노무현 “한국정치 이의 있습니다” 공저



3 광명 대변인 양순필

기득권 양당이 독점한 낡고 무능한 정치, 그 ‘산을 옮기는’ 양순필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 계좌 국민은행 422401-01-527022 김전진

납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 입금 후 010-5446-6182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 주시면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